

<http://www.mofa.go.jp/>

외무성 〒100-891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 TEL.03-3580-3311(대표)

2009.3

일본해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명칭~



외무성

1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입니다.
 이는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2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 마테오 리치 1602년 베이징 도호쿠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

The One and Only *Name* Familia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A OF JAPAN

(1) 일본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7세기초의 이탈리아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작성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입니다. 외무성이 조사한 결과, 18세기까지 구미지역의 지도에서는 일본해 이외에도 ‘조선해(Sea of Korea)’, ‘동양해(Oriental Sea)’, ‘중국해(Sea of China)’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19세기 초부터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본해라는 호칭은 19세기 초에 구미인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한국도 고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조사방법은 매우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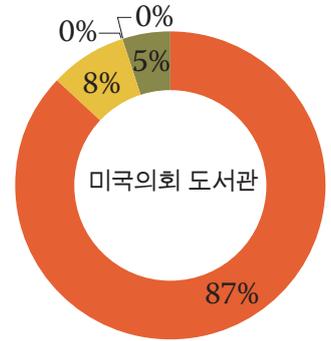
(가) 동일한 조사장소에서 한 일본의 조사는 한국의 조사보다 범위가 넓다

일본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고지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1,495장의 고지도를 조사하였지만, 한국이 이 박물관에서 실시한 고지도 조사는 일본의 약3분의 1인 515장을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일본의 조사가 범위가 넓은 것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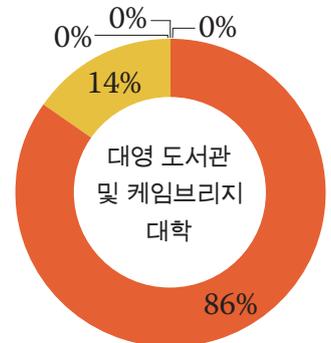
(나) ‘동양해’와 ‘조선해’의 호칭을 ‘동해’의 호칭과 동일시하고 있다

한국이 실시한 고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동양해(Oriental Sea)’, ‘조선해(Korea Sea, Sea of Korea)’를 ‘동해(East Sea)’와 동일시하여 이들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지도수의 합계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수의 합계를 비교하였습니다. ‘조선해’와 ‘동해’가 다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디만, ‘동양해 (Oriental Sea)’는 ‘서양에서 본 동양의 바다’라는 의미이며 ‘동해(East Sea)’는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양해’와 ‘동해’도 그 기원과 의미가 전혀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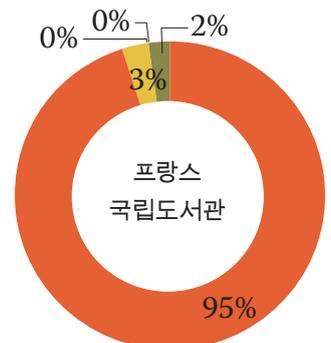
■ 지금까지 외무성이 실시한 고지도 조사(*) 결과
(19세기에 작성된 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 해당해역의 명칭 사용 비율)



(조사 기간:2004.12~2005.3)
(조사 지도수:1213장)



(조사 기간:2002.12~2003.6)
(조사 지도수:58장)



(조사 기간:2003.10~2004.1)
(조사 지도수:215장)

- 일본해
- 조선해
- 동양해
- 동해
- 기타

(*) 조사 지도는 일본해 해역에 어떠한 형태로든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지도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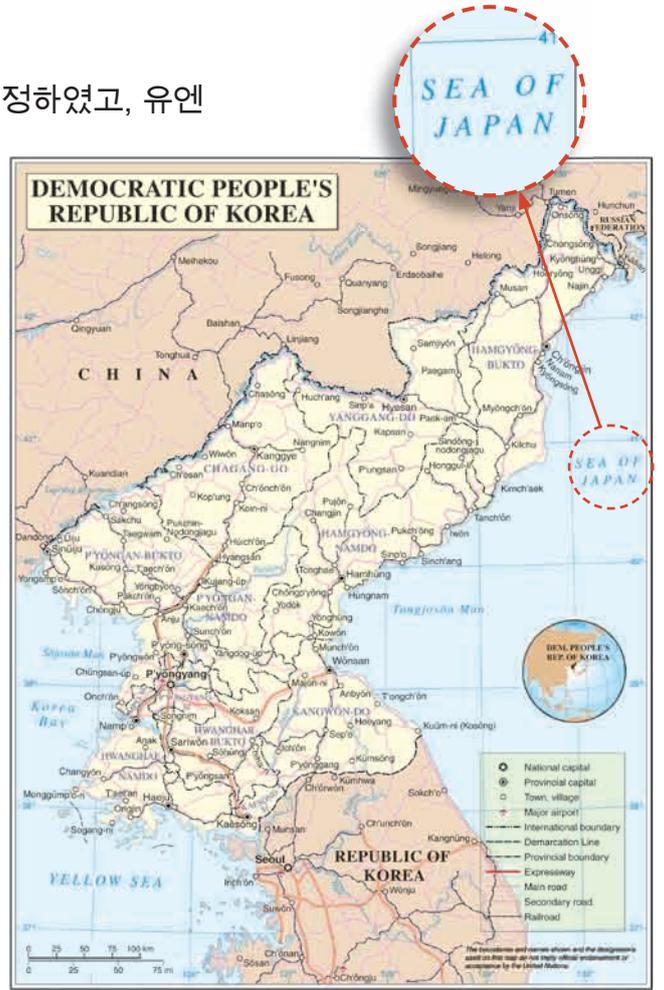
2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정부도 ‘일본해’ 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유엔의 방침

유엔은 2004년 3월 일본해가 표준적인 지명인 것을 인정하였고, 유엔 공식문서에서는 표준적인 지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해와 동해) 병기는 관행을 깨고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확립된 관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견해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정부의 방침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 지명위원회는 ‘Sea of Japan’ (일본해) 이 해당 해역에 관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하고 공식적인 명칭임을 정식으로 결정한 뒤 이를 공표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Sea of Japan’ 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의 미국내 기관에서도 일본해라는 명칭사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각 주요국가 정부도 일본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 작성 지도)

The One and Only Name Familia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A OF JAPAN

3 최근에 들어 갑자기 일본해라는 단일 호칭에 대하여 극히 일부 국가에서 이의제기가 시작되었으나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본은 단호하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1) 한국 등이 일본해라는 명칭에 이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가 처음입니다. 그 때까지만해도 양국간에서도, 국제회의 장소에서도 일본해라는 명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한국 등이 일본해라는 표기를 ‘동해(East Sea)’ 라는 호칭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일본해와 ‘동해’ 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한국의 주장: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확장주의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일본 정부가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19세기 초에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을 압도할 정도로 많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에도시대였으며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해라는 명칭확립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일본의 확장주의와 식민지 지배’ 에 의해 일본해라는 명칭이 확산되었다는 한국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본의 확장주의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확산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의 주장: ‘일본해와 “동해” 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있다.’

한국은 일본해와 ‘동해’ 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결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 결의III/20(*1) 및 IHO기술결의 A.4.2.6(*2)에는 ‘일본해와 “동해” 의 병기를 권고’ 하는 기재 내용은 전혀 없으며, 원래부터 이 2가지의 결의는 만 또는 해협 등이 2개 이상의 국가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해와 같은 공해

(*1)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1개국 이상의 국가 주권하에 있는 지형물의 명칭’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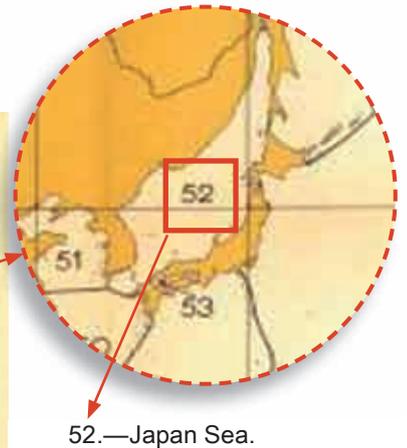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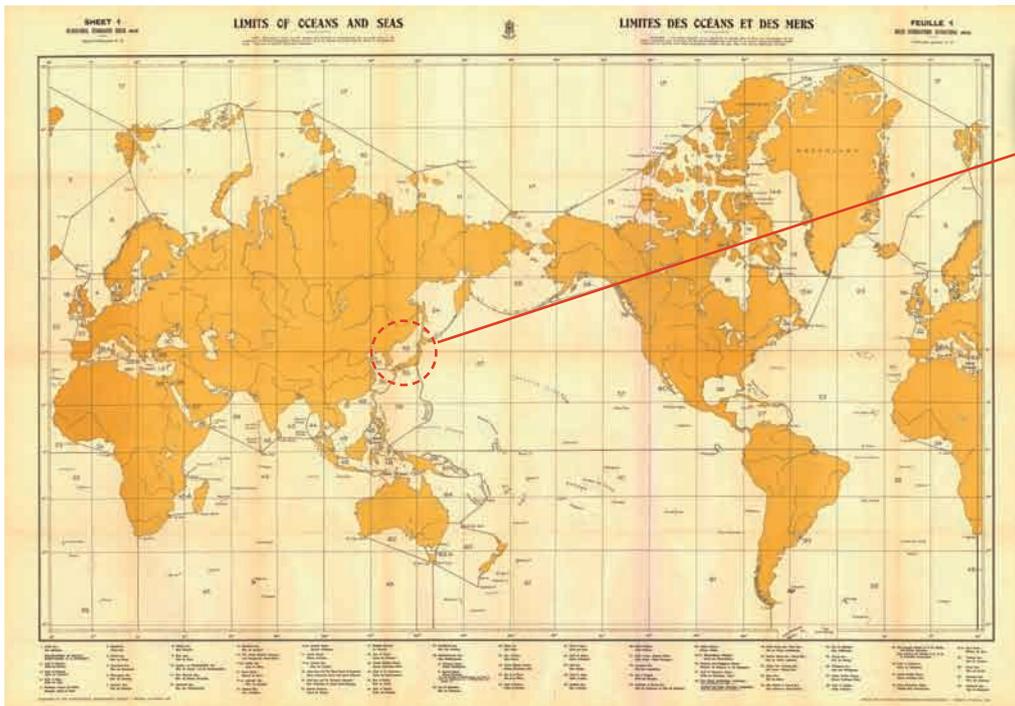
특정지형물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공유하는 각국은 해당 지형물에 대하여 단일명칭으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더욱이, 특정 지형물을 공유하고 있는 각국이 단일명칭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수용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지도 제작상의 일반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여러 명칭 중에서 하나 또는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운용면에서 적당하지 않다. .

(*2) 【IHO기술결의A.4.2.6 (1974년)】

2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특정 지형(예를 들어 만(灣), 해협, 수도(水道) 또는 제도(諸島))에 대해 다른 지명이 있는 경우, 이들 국가는 해당 지형에 대하여 단일지명으로 확정하는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국가가 상이한 공용어를 가지고 있어서 공통지명형식으로 합의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축척 해도에 적용할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각국 언어로 된 지명형식을 해도 및 서지류에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태평양' 과 '대서양' 에 접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 1개국이라도 이같은 대양의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면, 복수의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 이러한 확대 해석은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은 유엔 공식문서에 표준적인 지명으로서 일본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으며 IHO가 출판한 '대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서도 해당 해역에 대해서 일본해라는 단일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해와 '동해' 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52.—Japan Sea.

IHO가 출판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의 일본해 해당 부분)

The One and Only *Same* Familia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A OF

(3) 현재 한국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 서쪽 바다를 '서해', 남쪽 바다를 '남해' 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내에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참견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실제로 사용해 온 일본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한국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에 지나지 않는 '동해' 를 국제적인 표준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국제적인 해상교통의 안전 면에도 영향을 미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UNCSSGN), 국제수로기구(IHO) 등의 국제회의의 장에서 한국 등이 이같은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일본은 단호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4 최근에는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일부를 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한국 건설교통부(현: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7년 11월에 발표한 고지도조사에서는 이전에 실시한 한국의 조사와 동일한 문제점 (3.(2) (나))은 남아 있지만, '19세기(1830년~) 이후, 일본해라는 표기가 급증하였다' 라는 기술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3.(2) (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한국 정부가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본의 확장주의와 식민지 정책' 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 이고, 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JAPAN